

“한국 고령화 심각... 청년 ‘스텝’ 인재-장년 혁신역량 키워야”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노벨 경제학상 데이비드 카드 강연

“고령층 2040년 35%... 다과 맞먹어 대졸실업-일자리 미스매치 큰 문제

과학·공학등 이공계 인재 육성하고 고령층 혁신 역량 교육 강화해야
美처럼 청·장년 한팀서 시너지 효과
생산활동에 여성 인재 적극 활용을”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 역량을 갖춘 장년층과 ‘스텝(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젊은 인재가 함께 일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돼야 한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카드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 교수는 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구조와 교육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업적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그는 이날 “팬데믹 이후 인구 변동과 글로벌 경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대답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 **고령화와 대졸 실업 문제**

카드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과거 1960, 70년대 한국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노동력이 창출되고 젊은층이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을 나눠 지면서 인구 증가의 효과를 누렸다”며 “하지

만 여성 인구 1명당 출산율이 1970년 4.5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2040년 일본과 비슷한 30~3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졸 실업과 일자리 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 비교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중이 20~25%로 다른 국가 대비 높은 편”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갖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에서 대학 진학률은 70%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공학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이런 점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젊은 인재와 경로는 시너지를 필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 교수는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할 나이든 사람들의 지름길을 안다”는 독일 속담을 언급하며 “젊은 이공계 인재를 배출하고, 고령층은 혁신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드 교수는 “한국 고등학생의 수학 성적은 50여 개국 중 3, 4위, 과학 성적은 39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공계 전공자가 매우 적다”며 “STEM 분야에서 많은 전공자가 나와야 하며, 한국 대학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강점을 보이는 수학, 과학 등 이공계 분야를 더 강화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할 젊은 직원과 문제 해결 능력과 경력을 갖춘 시니어 직원이 한 팀에 배치돼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혁신 역량을 높이면 젊은층과 고령층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데이비드 카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오른쪽)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카드 교수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이공계의 젊은 인재와 혁신 역량을 갖춘 고령 인재가 함께 일하는 문화’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여성 인재를 적극 활용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산활동인구 비중은 25~29세에서는 약 70%로 비슷하지만 30, 40대로 가면 큰 차이가 난다”며 “30, 40대 남성의 생산활동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 **한국 기업은 품질 사다리 올라야**

카드 교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언으로 “어려운 국내의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제품의 품질에 대해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야”고 평가하면서도 품질 격차가 있다고 했다. 카드 교수는 “향후 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제품 혁신을 통해 품질을 높여 소득 상위 5% 계층을 겨냥해야 한다”고 조

언했다. 한국 기업들은 특허와 공장 자동화에 강점이 있어 품질 개선에도 쉽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탄소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추세로 가버탄소에도 논의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ESG 중에서도 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등 지배구조(G)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카드 교수는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가장 큰 공급망 차질이 벌어졌다. 일부 산업은 ‘마이너스(→여성장) 쇼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관을 차단하면 독일 제조업이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 충격에 겪으며 공급망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솔린 값 상승 등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금리 인상으로 노동 시장이 냉각될 수도 있다”며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해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현 yhkang@donga.com·이성현 기자

카드 교수 강연에 몰린 청중 “한국경제 진단 인상적”

강연 내용 받아 적으며 귀 기울여
인구변화와 인플레이션 등 질문도

윤재욱 정부위원장 “금융백범시대
국회가 창조적 규제 파괴자 될 것”

“국회는 새 정부와 함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것을 만들고 금융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겠습니다.”
윤재욱 국회 정부위원장(국민의힘·사진)은



26일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 축사에서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금융업은 빅데이터가 가속화되고 디지털 자산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금융 백범’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는 새 정부와 함께 창조적 규제 파괴자가 돼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처음 한국을 방문해 ‘팬데믹 이후 인구

변동과 글로벌 경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는 소식에 참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방역 등을 감안해 좌석 간격을 띄운 가운데 200여 명의 청중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청중들은 노트북에 강연 내용을 받아 적으며 카드 교수의 조언에 집중했다. 기조강연 이후 이어진 카드 교수와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대답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의 상관 관계 등을 묻는 청중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강연 내용에 대한 호응도 이어졌다. 황원순 금융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인사이트를 줬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는 5대 금융지주 회장, 금융 유관 기관 단체장, 인터넷 언론인 및 증권사 대표 등 금융계 인사와 일반 청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태블릿PC에 강연을 매조해가며 들은 대학원생 김예수 씨는 “인구 문제부터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 고령화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동아국제금융포럼은 2013년 처음 시작돼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전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단골로 초청해 기조강연을 들었다. 올해는 기조강연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3년 만이다. 이성현 기자 payback@donga.com